

“나만의 능력 키워 창업이 꿈”



방중선씨

7년 전 부친과 함께 유리 시공업 도전 “인테리어 배우기 위해 4년 전 취업”

“취업이 어려웠던 시기에 아버님이 하시던 유리 시공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만의 전문 능력을 키워 인테리어 관련 창업을 하는 게 꿈입니다.”

창호·금속 등 인테리어 회사에서 전문 기술을 익히고 있는 방중선씨(28). 방씨는 관련 분야에 4년 동안 종사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그는 인테리어 회사를 세우는 게 최종 목표지만, 지난 대학 시절엔 공무원 및

일반 사기업체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이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방씨는 전공을 살려 관련 회사 등에 취업하려 했지만, 잇따라 실패하면서 부친이 운영하는 유리 전문 시공으로 고민 끝에 진로를 바꿨다.

부친은 35년 동안 창호에 들어가는 유리를 재단하고, 시공하는 전문 기술자다. 이미 지역에선 관련 분야에 상당한 인지도가 쌓여 있고, 여러 클라이언트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업가이기도 하다.

방씨는 지난 3년 동안 아파트나 일반 주택 공사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친의 전문기술을 습득했다. 최근엔 부친 곁을 떠나 신기술을 익히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테리어 전문회사에 취업

했다.

취업 후 방씨 하루 일과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정이 빠빠하다. 광주·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북·대전·경주 그리고 경기도까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전문 인테리어 시공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는 타 인테리어 회사와 차별성을 위해 대표에게 ‘드레스룸’ 수제 제작을 건의해 최근 고객들로 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가격은 일반 시중가에 비해 저렴하고, 높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회사 히트상품으로 통하고 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인테리어 일이라고 하면 ‘막노동’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며 “물론, 몸이 힘들긴 하지만 인테리어를 배우고 싶은 분이라



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취업난이라는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과 사이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면서 “공무원 등 일원화된 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능력을 익히고, 발전시키려는 청년들은 어떤 일든 도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 최하위

처리 사건 359건 중 18건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노동행위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장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은 359건이다.

이 중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 노동으로 인정한 사건은 18건으로 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지노위 13

곳 가운데 최저 수치다. 전국 평균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은 12.2%다. 광주·전남 부당 노동행위 사건 중 화해 사건 수는 100건이다.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은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남지노위의 사업주 현장 조사 실적은 85건(23.7%)으로, 조사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다만, 사업주 상대 부당 노동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은 46건(12.8%)으로, 전국 평균(19.3%)보다 낮았다.

신 의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에 당하고도 최종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낮은 구제율 등으로 미뤄 부당 노동행위의 판정 기준·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기자

전남 지역 폐교 138곳 ‘골머리’

‘미활용 폐교’도 42곳 전국 최대 교육당국, 법적 한계 입장 난처

전남지역 미활용 폐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문을 닫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682개에 달하며 전남 지역 폐교는 138개로 경북(14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경북(35개), 경남(23개), 대전(15개), 충남(13개), 충북(11개) 등이 뒤를 이었다.

폐교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 교육 당국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법적 한계도 있는 데다 각종 이해관계와 분쟁까지 얽힌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공익사업을 위해 좀 더 수월하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와 서울은 폐교가 각각 1개로 가장 적었고, 두 곳 모두 자체 활용중이다.

신경민 의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9일 광주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19년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한부모와 다문화에 대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적어 붙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편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교육청, 교육부 보안업무 ‘최우수’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19 보안감사 및 국가보안’ 평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대학교, 소속기관 등 17개 대상 기관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가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보안제도 및 운영,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정보보안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실무편람 제작, 16과 관리기록부 정비, 업무담당자 보안교육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평훈 행정국장은 “각 실·과 보안업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9년도 보안업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안사고 예방 활동은 물론 자체 보안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대병원 ‘심초음파 검사비’ 가장 비싸

전남대병원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비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중 전남대 병원이 6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반해 제주대 병원은 18만원으로 47만원의 차이가 났다.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인 척추, 관절 MRI 진단료는 ‘경주, 요전추, 견관절’ 촬영의 경우 전남대 병원은 68만 원으로 진료비가 최저인 충북대병원 (53만원)보다 15만원 비쌌다. /이나라 기자

“택시비 못 줘”

도리끼 ○... 목적지에도 착해 택시 요금을 계산하라는 택시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40대 승객이 경찰서행.

○...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문모씨(42)는 9일 새벽 2시께 목적지인 북구 운암동 한 농장에서 택시기사 김모씨(50)가 요금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

○...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문씨에게 “택시를 이용 했으면 당연히 요금을 내는 게 맞는데 돈 대신 주먹을 날렸냐”며 혀를 꼴꼴. /이나라 기자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